

인터뷰/ 김세영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 도복희 기자 | ☎ 승인 2025.03.23 14:17

충남지역 최초 여성 지사장...“유연한 조직문화 위해 리더십 발휘할 것” ‘안전관리’·‘고객만족 경영’ 중점적으로 추진



김세영(51·사진)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는 충남지역 최초 여성 지사장이다.

그는 “남성 위주의 조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후배 여성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나갈 뿐 아니라 다양한 인재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장은 전북대에서 조경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조경학 박사 취득 후 1995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했다. 이후 새만금사업단 공사차장, 군산지사 농어촌사업부장, 전북본부 농어촌개발부장을 역임하고 올해 1월 서천지사로 부임했다.

그는 “농어촌은 현재 고령화와 공동화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됐고, 기후 위기·환경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전 직원은 농지은행사업부터, 농업인프라, 지역개발, 유지관리 등 농업, 농촌에 필요한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 공간이 좀 더 활성화되고 활력이 넘쳐 지역소멸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안전관리’와 ‘고객만족 경

영'이다. △농업 식량 인프라 개발 △친환경 용수관리 △농어촌 공간개발사업 등 관내에 22개 사업장에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본부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챗봇 시스템을 통한 공사현장 작업 전 TBM 보고로 현장의 위험성을 평가, 사전 조치하는 등 스마트 업무 혁신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80곳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한 보수공사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재해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농지은행 청년농 소통협의체를 구성한 서천지사는 제도개선, 신규정책사업 등을 발굴해 고객만족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과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해 농업을 은퇴한 고령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두텁게 지원하고 이를 통해 나온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해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서천지역 농촌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청년농을 지원하는 다양한 농지은행사업을 보다 활성화시켜 청년농들의 정착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천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